

클린턴의 18시간 방한 ... 천안함 문제, 발표문에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를 예방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18시간 체류 후 일본으로 떠났다. [AP=연합뉴스]

“대북 정책은 한국이 리드하고(이끌고) 미국은 지원하는 기초를 계속 유지하겠다.” 16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의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의지를 다짐한 뒤 17일 일본으로 떠났다. 클린턴 장관은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핵을 의제로 한 남북 대화가 우선이고,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에는 전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의해



리비아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탈출할 당시 선박 5척에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실고 떠난 사실을 보도한 본지 3월 4일자 1면. 이후 본지는 당시 미국인 1명도 함께 구출한 사실을 보도했다.

6자회담 재개 미묘한 변화

한·미 “북 책임있는 태도 촉구”
추상적 표현으로 유연성 남겨

(결정)하겠다”고 17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은 우리 측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개시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최근 북한과 중국이 던진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 카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정리해 공을 다시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남북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이나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 등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개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한·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조치에 대해 “한·미는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클린턴, MB에게 “고맙다”

한국 근로자 리비아 철수 당시
현지에 있던 미국인도 함께 구출

에 일단 합의했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이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추상적으로만 표현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줘야 한다는 미국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클린턴 장관은 16일 서울 도착 직후 “한·미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조기 비준 가능성을 시사했다. ◆클린턴 “생규, 코리아”=클린턴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한국 정부가 리비아에서 미국 국민의 철수를 도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우리 정부와 기업이 리비아의 우리 근로자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60대 미국 남성 한 명도 함께 선박에 태워 그리스 크레타섬으로 탈출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EFMD EQUIS ACCREDITED

미국경영교육인증 유럽경영교육인증

누가 감히 최고를 넘보는가

고대 경영대, 국내 최초 세계 경영대 순위 100위권 진입

- 미국 텍사스대(UTD) 세계 경영대학 연구업적 평가 -
경영학 분야 24개 최우수 학술지 게재 2006 ~ 2010년 논문 실적 기준

Rank	University	Articles	Score	Country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Wharton School)	322	174.08	USA
2	Duke University (The Fuqua School of Business)	242	126.22	USA
3	University of Michigan at Ann Arbor (Ross School of Business)	237	121.72	USA
4	New York University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	250	119.51	USA
5	Havard University (Harvard Business School)	194	115.62	USA
97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7	13.52	USA
98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College of Business)	28	13.50	USA
99	Korea University	37	13.45	Korea
100	Washington State University at Pullman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27	13.38	USA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http://biz.korea.ac.kr

2011학년도 MBA 모집 안내

- 프로그래밍: Finance MBA, Global MBA, S³ Asia MBA
- 전형일정: 2011. 5. 1(일) 온라인 지원 마감
- 지원 및 문의: http://biz.korea.ac.kr/APP 02) 3290-5369

북한판 태자당 ‘봉화조’ 멤버들 김정철과 싱가포르 함께 갔다

(2월 에릭 클랩턴 공연 관람)

지난 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 김정철(30)이 싱가포르를 여행했을 때 북한판 ‘태자당’인 ‘봉화조’ 멤버가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 소식통은 17일 “당시 김정철과 봉화조 일부 멤버가 싱가포르와 마카오·말레이시아를 여행하면서 미화 10만~30만 달러의 판돈을 거는 도박을 즐기고 백화점에서 호화쇼핑을 했다”고 전했다. 김정철은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팝가수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또래의 북한인들과 함께 관람했다.



김정철(오른쪽 둘째)이 지난 2월 14일 일행들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KBS 촬영]

대북 소식통은 “봉화조는 중국 당·정·군 고위층 인사들의 자제 모임인 태자당처럼 북한 고위 간부의 2세들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부친의 후광으로 주요 권력기관에 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30대 후반~40대 초반 나이로 화폐 위조 및 마약 유통 등 불법 활동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 중 상당액을 정은·정철 형제에게 상납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봉화조 멤버 중 일부는 마카오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카지노의 VIP 고객”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철과 봉화조 멤버들의 거액 도박 및 쇼핑 사실이 싱가포르와 마카오 주재 북한 외교관과 주재원 사이에 퍼지면서 “인민이 굶고 나라의 경제사정은 어려운데 사치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00년대 초 결성 봉화조는

오극렬·강석주 아들이 리더
수퍼노트 제작, 마약 유통 관여
싱가포르에선 뭘했나
10만~30만 달러 판돈 도박
백화점 돌며 호화쇼핑 즐겨

된 봉화조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단체의 실질적 리더로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들 오세원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아들 강태승, 보위사령관 김원홍의 아들 김철 등이 거론됐다. 북한은 지난 13일 군인사에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57) 노 동당 군사부장을 상장(3성 장군)으로 승진시키는 등 김정은 후계 구축에 맞춰 빨치산 혁명 1세대의 자제들을 중용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sujeong@joongang.co.kr**